

르노삼성 노사대립에 1780억 손실... 제2 GM사태 우려

노사 20차 임단협 타결 또 실패
기본급·작업환경 등 이견 못 좁혀
부산공장, 로그 물량배정에 차질
가동률 저하로 고용 안정성 위협



르노삼성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르노삼성 노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지난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늦은 밤까지 20차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기본급 인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가는 르노삼성 노사가 르노그룹이 요청한 협상 시한(8일)을 넘기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노사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책임지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을 10만667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신차 배정을 앞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 측은 성과격려금 300만원과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원 등 총 1400만원 규모의 일시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 7일 일시금 지급 규모를 1500만원으로 늘리고 근무강도 개선을 위한 인력 총원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측은

'2차 수정안'으로 172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물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 불협화음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업계 예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환 배치, 인원 투입 등 현재 협의로 돼 있는 인사경영권을 노조 합의로 전환하는 것은 부산공장의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쟁력 저하는 물론 향후 부산

공장의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르노그룹 본사가 수천억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도 직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기본급 인상 등 고정비가 인상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해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배정 절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공장 생산직의 2017년 평균임금은 7800만원으로, 로그 후속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 닛산 규슈공장보다 20% 이상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낮은 고정비로 인해 생산성 역시 5%가량 일본이 높은 상황이다.

르노삼성이 닛산 로그의 후속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그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르노삼성의 전체 4년간 생산 물량(92만 8870대) 중 로그 생산량은 52.1%인 48만 4351대에 달했다. 지난해는 전체 생산물량(21만 5809대) 중 10만 7262대, 2017년엔 26만 4037대 중 12만 2542대였다.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안정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산공장의 연간 최소 생산 규모는 20만대가량이다. 하지만 주력 모델의 노후화와 신차 부재 등으로 인해 갈수록 내수 판매가 악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다. 내수 물량으로만 이를 해소할 수 없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9만 3699대였다. 국내 5개 완성차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 한국지엠이나 국내 기업처럼 결국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가 주장하는 연봉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은 회사가 안정적인 시기에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르노삼성의 위기는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르노삼성 노조는 이번 임단협 협상 중 부산공장에서 총 160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은 총 1780억원이다. 르노삼성 협력업체들 또한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가 지속되면서 인력 이탈과 함께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미래자동차 공유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19 서울모터쇼' 29일 개막
22일까지 1000명 선착순 모집



지난 2017서울모터쇼 기간 중 열린 국제 콘퍼런스 현장 모습.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2019서울모터쇼' 기간 중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유명 연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자동차 기술 및 트렌드에서부터 인재육성·디자인·라이프 스타일 등 다채롭게 구성되며,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터쇼에는 빈프리트 베버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장, 스티븐 조프 스탠포드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후센 압델라티프 TUV SU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부부장, 리처드 정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 회장, 램코 버워드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총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성인 3만원, 학생(대학생 포함) 2만원이며, 10인 이상의 단체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에어아시아, 인천~마닐라 7만9000원부터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기 빅세일

에어아시아는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2019년 첫 정기 빅세일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빅세일은 최대 1년 후 항공편을 대상으로 최저 운임에 구매할 수 있는 정기 얼리버드 프로모션이다. 이번 빅세일 대상 항공편의 좌석은 총 500만 개이며 여행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BIG 회원은 하루 전인 10일부터 이벤트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로모션의 노선별 항공편 가격은 인천 출발 직항 노선의 경우 ▲인천~클락 5만 9000원부터 ▲인천~마닐라 7만 9000원부터 ▲인천~세부~칼리보(보라카이) 8만 9000원부터 ▲인천~쿠알라룸푸르~방콕(돈트양) 9만 9000원부터이고, 부산 및 제주 출발 직항 노선은 ▲부산~칼리보(보라카이) 7만 9000원부터 ▲부산~쿠알라룸푸르 9만 9000원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8만 9000원부터다.

/정연우 기자

놀라운 연비효율... 3기통 엔진의 매력

자동차 시승기
한국지엠 더 뉴 말리부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말리부 부분변경 모델(더 뉴 말리부)을 공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그중 연비효율을 위해 '다운사이징'한 1.35리터 3기통 직분사 가솔린 E-터보 엔진 탑재 모델은 단연 돋보였다.

지난달 28일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더 뉴 말리부 1.35L 직분사 가솔린 E-터보 모델과 함께 서울 송례문에서 파주까지 왕복 110km 거리를 달렸다.

차량 외관은 유려하고 부드러운 라인을 지니고 있었다. 부분변경을 거쳐 더욱 날카로워진 헤드램프는 물론, 헤드램프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자연스럽게 잇는 크롬라인, 입체적인 굴곡을 강조한 새로운 LED 리어램프 디자인, 스포츠 쿠페를 보는 듯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인상적이다.

차체재원은 전장 4935mm, 전폭 1855mm, 전고 1465mm이며 공차중량은 1415kg이다. 실내는 180cm의 성인 남성이 탑승해도 공간이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했다. 이 차량은 1.35리터 E-터보 엔진에 VT40 무단 변속기



주행 중인 더 뉴 말리부 E-터보 측면부

/한국지엠

가 맞물려 최대출력 156마력(5600RPM), 최대토크 24.1kg·m(1500~4000RPM)의 성능을 발휘한다. 3기통의 작은 엔진이 5m에 가까운 덩치를 이끌고 있음에도 주행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

E-터보 운전대를 잡아보니 주행 시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작아진 엔진 탓에 저속으로 달려야 하는 도심구간에서 엔진 소음을 일부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강변북로에 진입했다. 구간 특성상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고속주행 구간이 많았다. 단속에 주의하며 가속 페달에 힘을 주어 보았다. 가속 시 치고나간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답답함도 없었다. 게다가 기존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된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을 활용해 주행정보를 볼 수 있다.

E-터보의 복합연비는 16·17인치 타이어 기준 14.2km/l, 19인치 기준 13.3km/l이다. 시승차량에는 19인치 휠에 콘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됐는데 약 50km를 주행했을 때 계기판에 표시된 연비는 15km/l 가 나왔다.

차가 많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는 3~4m 정도 거리에 앞차가 감지되면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울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E-터보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LS 2345만원, LT 2741만원, 프리미어 2845만원, 프라임 세이프티 3125만원이다. 스페셜 에디션인 퍼펙트 블랙은 프리미어 2930만원, 프라임 세이프티 3210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타다, '공기청정 필터' 전 차량 적용

타다는 초미세먼지 98%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 청정 필터를 전 차량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와 승객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걱정 없이 타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타다 차량에 장착되는 필터는 세

계 최초 차량용 해파 콤비 필터를 개발한 루프트(LUFT) 코리아의 '루프트(LUFT) 차량 전용 HEPA 필터'로, 0.3μm 크기의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를 98% 이상 제거해 차량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를 10μg/m³ 이하로 유지한다.

해당 공기 청정 필터는 지난해 11월 말 블랙 색상의 차량으로 운영된 '타다 베이

직 B'에 추가 옵션으로 시범 적용됐으며 이용객 및 드라이버들의 호응 및 요청에 따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필터 장착이 완료된 타다 차량에는 탑승석 오른쪽 창문에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확인 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타다의 가장 기본 라인업인 '타다 베이직'을 시작으로, 4월 출시 예정인 '타다 프리미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